

성극팀은 꿈꾼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전해진 조선 말엽에는 교회를 통하여 음악과 연극을 비롯한 다양한고 생소한 문화 콘텐츠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되었다. 1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기독교 문화가 편협하다거나 촌스럽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교인들 사이에서도 다소 어색한 것이 되었다. 특별히 연극은 더욱 그랬다. 그러나 연극을 통한 선교는 이제 새로운 궤를 형성할 만한 기반을 갖게 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 이미 풍성한 드라마 문화 체험을 하고 있다. 이제 기독교 연극도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불신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작품을 무대에 올려야 한다.

우리 주님의교회 성극팀은 이런 교회 문화 사역의 일부를 감당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팀장을 비롯한 50여명의 팀원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힘을 다하고 있다. 성극팀에서는 현재 매년 1~2회의 성극공연을 하고 있으며 다수의 스킷드라마를 제작하여 예배의 다양화에도 기여하고 있



다. 초기에는 연극을 제작하거나 연기를 경험한 인력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다.

작품을 정하는 과정의 어려움과 3개월여의 긴 연습기간을 거치면서 우리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했다. 서로의 의견차이로 아파야 했고 봉사자들이 과중한 작업량으로 인해 실족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통

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감사와 기도로 담대히 나아갔다. 기도하면서 긴밀하게 교제하고 서로의 부족을 사랑으로 메워 주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 성극팀원들은 고통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인내와 용서만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을 안다. 관객에게 결과물을 내어놓고 칭찬을 듣는 것은 가장 작은 열매일 뿐이다. 작품이 완성되어 가는 쓰리고 아픈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만난다.

비록 아직은 교회 내에서 밖에는 공연을 실현할 수 없지만 우리 성극팀원들은 꿈꾼다. 송파구민들이 주말이면 우리 교회에 연극을 보려고 모여들고 더 넓게는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나라를 찾는 외국인들도 주님의교회에서 상설 공연하는 멋진 성극을 보러 와서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게 될 그 날을 꿈꾸어 본다. <성극팀 김예식권사>

사랑의 눈 맞춤



우리 아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 엄마와 눈을 맞추며 미소 짓는 순간입니다. 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눈 빛 속으로, 세상의 언어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신뢰가 오고 갑니다. 엄마의 눈 속에 아이가 있고,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엄마와 눈을 마주보며 함께 노래하고 예배하며 놀이하는 아기정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5기 수료식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항상

그러하였는데, 이번 학기도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돌보시는 손길 속에서 은혜로운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학기를 거듭할수록, 숨겨진 돌봄과 교사들의 헌신된 터전위에 아기정원이 정성스럽게 가꾸어집니다. 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정원에서 가슴에 새겨진 신앙의 추억은, 하나님의 아이들을 지켜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은숙 전도사>

2010 상반기 죽배달 사역이 방학합니다

복지선교팀 거여 마천동 독거 어르신과 장애우들 죽 배달 사역 상반기 사역이 무더위로 인해 8월 16일까지 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하나님이 주신 조그마한 정성 같이 나눔에 많은 은혜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죽을 받으신 어르신들 하늘나라 가신 분들 생각과 요양가신 분들 무더위 잘 지내시기를 봉사자 한분 한분을 죽과 배달이 없을 때 드실 쌀 국수를 나누어 드리며 손을 마주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더위 지나고 계속 땀기를 바라다 며 수고하신 모든 봉사자님들 감사합니다.

<신형섭 기자>



축하합니다

현준(부. 조훈구/모. 김혜령)이 교회 첫나들이를 축하합니다. 항상 주님 품안에서 잘 자라는 아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2010.7.11. 예배에서>



전화신앙 상담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오늘은 감동적인 DVD편을 소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목은 파이어프루프(원제: Fireproof)입니다. 2009년에 열린 제7회 서울기독교영화제 개막작이며, 기독교영화의 오스카상이라 할 수 있는 무비가이드

2008 Faith & Values Awards에서 최고영예인 Epiphany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직장에서는 헌신적이고 동료에 넘치는 훌륭한 소령관으로 인정받는 주인공 케일럽이지만 결혼생활에서는 아내와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함으로 인해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져 마침내 이혼 직전의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40일만 이혼을 미루어보라며 아버지가 보내준 <사랑의 도전>이라는 노트에 쓰여진 40일간의 지침을 실천해가던 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영화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서우드 침례교회가 운영하는 영화사 서우드 픽처스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알렉스 켄트릭 목사님이 각본과 감독을 맡았고, <레프트 비하인드> 시리즈의 커크 카메론(케일럽 역)과 <페이싱 더 라이언트>의 에린 베시(캐서린 역)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명의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입니다. 그 무명의 배우들은 대부분 연기경험이 없는 이 교회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 영화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 영화를 위해 신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곳저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든든한 기도위에 만들어진 영화이기에 미국에서만도 이 영화를 통해 4000여쌍의 부부가 이혼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아름다운 기적을 이룰 수 있었나봅니다. 또 미국의 어느 극장에서는 영화가 끝난 후 한 남자가 자신은 지금 이혼직전에 놓여 있으니 여기에 크리스천이 있으면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자 극장안에 있던 200여명의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기도해 주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는 정말 감동적이고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용서를 통해 우리도 배우자를 비롯한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DVD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꼭 챙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놓치면 정말 아쉬울, 두고두고 기억될 좋은 영화입니다. <박윤정 기자>

|오늘의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 롬 4 : 20 - 21

통 권 제 268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0년 7월 18일

설레임으로 기다린 2010 전교인수련회



지난 몇 주간 전교인과 함께 떠날 이번 수련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출애굽을 기억하며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광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광야로 나아가 것입니다. 광야로 나아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렘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은 우리가 함께 함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함께할 하나님에 대한 설레임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걷는 시간입니다. “주와 함께 걷는 길”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의 길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영적오솔길을 통해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레버린스라는 고전적 영성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버린스란 12세기에 성도들이 성지순례의

길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정원을 걸으며 진행했던 기도의 길, 묵상의 길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을 것입니다. 라틴어로 비아돌로사(Via Dolorosa)라고 불리는 ‘십자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곳으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었던 길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에 이르기까지의 길을 의미합니다. 이 길을 걸을 때 함께 걸으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걷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로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만져보십시오,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이번에 주강사로 모시는 림형천 목사님은 제가 많이 존경하고 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목사님이십니다. 림 목사님을 통해서 올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가족의 길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신과 열정으로 수련회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에도 감당하기 벅찬 은혜를 부어주시길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감시다. 바로 당신입니다. 나의 손을 잡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걸을 그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담임목사 박원호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로 템 나 무



| 걸음마 |

여호와와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역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여호와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시편147:10-11)

처음에는 무언가를 붙든다.
혼자서는 걸을 수 없기에.

그러다가 손을 놓는다.
내가 의지하던 것에서.

홀로 걷는 것이 아니다.
저만치에서 나를 기다리신다.

힘겹게 한 걸음 땀 때마다
두 팔을 벌리고 기뻐하신다.

아무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기에.

주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자꾸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 때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엄혜숙 기자>

살롬의 집 돕기 HOWZING CONCERT

7. 24 (토) 저녁 7 : 00 _ 주님의교회 대예배실



장애인 공동체인 살롬의 집 터전 마련을 위해 중등부 학생들이 마련한 자선 콘서트

① 티켓 구입 : 7월 11일, 18일 주일 1층 로비 (성인-1만원, 학생-2천원)

② 살롬의 집 후원방법

가. 정기후원 : 매달 작정한 금액 나. 1004 한 구좌 : 20만원

다. 일회후원 : 이번 콘서트기간 중 마음의 감동대로

라. 생필품이나 음식, 또는 의류 등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등부 부장 지효선 안수집사(011-9077-5255)에게 문의

2010 전교인 수련회에 대해 2면

국제 홀리스 선교사/비전트리/말씀서예반 3면

성극팀/아기정원/죽배달 사역 외 4면

2010 전교인 수련회 에 대해

■ 우리교회는 매년 여름이 되면 하계수련회를 갖는다. 초창기에는 황성수련원, 남양주기도원, 광림수목원 등지에서 전교인이 참석하거나 혹은 교구별로 시행하여 하나님ی 창조한 대자연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도간의 우의를 다지기도하고 성령님과 영적교감을 갖기도 한다.

■ 올해 2010년도는 충주 리조트에서 7월 29일부터 31일간 1300명이 참석하는 대형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는 길로 정했습니다. 길의 상징적 의미는 크다고 봅니다. 생명체는 움직입니다. 그 동적이 궤적이 길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길을 하나님이 향하는 곳을 정해야 합니다. 가는 길에 가족이 동행하고 영성행동이 있고, 또한 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이 세 가지(가족, 영성, 십)를

조화롭게 수행하려합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신화식 목사님은 수련회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할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합심될 때 영적충만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일예배를 신목사님은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수련회 성공위한 기도회로 이끌었다.

■ 이번 수련회의 일정은 크게 3부분으로 이뤄진다고 이 행사를 총체적으로 주관하는 최상인 장로는 수련회의 행사내용을 설명해주었다. “수련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레버린스입니다. 레버린스는 나무숲 사이를 교구별로 걸으면서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지냈던 신실함을 닦고 세속적인 마음을 비우는 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행사입니다. 장년들을 위한 이호선 박사의 <행복한 가정세우기>특강을 시작으로 청소년을 위한 교육활동, 어린이를 위해 <메믹>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활동 및 문화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 훈련은 성경퀴즈대회와 운동회 및 캠프파이어를 준비하고 있고요, <주님의 발자취> 시간에는 각 소그룹별로 발표회를 합니다.”

한편, 등록, 차량배정, 방배정의 일을 맡은 유성훈 목사님은 “이번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안전이라고 하시면서 차량탐승 방식용 식사시간에 질서있는 모습으로 서로가 은혜가 되는 수련회가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편집장 하태원)



★ 레버린스
레버린스란 12세기에 성도들이 성지순례의 길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정원을 걸으며 진행했던 기도의 길, 묵상의 길' 입니다. 전교인수련회에서 레버린스를 만나며 천천히 걸으면서, 중간 중간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생각합니다. 모든 길은 침묵하며 걸어갑니다.

★ 메빅 소개
▷ MEBIG은 제자화 프로그램이다. 그저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제자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MEBIG의 ME는 'Memory'에서 따온 것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의 양육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MEBIG은 요절 암송과 간증 통하여 매일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눈다.
▷ MEBIG은 예배이다. MEBIG의 B는 'Bible'의 앞글자에서 따온 것으로 찬양, 메시지, 기도 등의 의미를 포

함한 Bible로 표시한다. 전통의 주일학교가 아닌 예배이다. 참석한 친구들이 기쁘게 찬양하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씀을 듣고,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를 하는 것이다.
▷ MEBIG은 놀이를 중요시한다. 몸을 사용하여 땀을 흘리며 하나님께 예배한다. MEBIG의 G는 'Game'의 이니셜이다. MEBIG은 놀이도 예배라고 생각한다. MEBIG세미나에서 이것을 성경적인 배경과 의학적인 배경에서 배우게 된다.

★ 수련회 유의사항
서로를 알 수 있도록 명찰을 착용하여주시고 귀가하실 때 반납합니다. 아침 경건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너무 늦지 않게 취침! 식사시간은 3교대로 식사합니다. (식당 규모: 1회에 400여명 식사 가능)
※ 단, 첫째 날(7/29 목) 점심식사는 3교대 순서와 관계없이 도착하시는 대로 식사하도록 합니다.

숙소배정의 기준:
- 어린 자녀는 어머니와 함께 있도록 숙소를 배정하였습니다.
- 대규모 가족의 경우 한 숙소로 배정하였습니다.

버스 탑승
첫째 날, 교회 접수대에서 오시는 순서대로 탑승차량을 지정해 드립니다. (1호차, 2호차...)

국제 홈리스 선교사님

“저는 국제 홈리스입니다. 세계의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선교사들을 돌보는 순회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서정은 선교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들은 이 이야기는 나의 맘속에 많은 생각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렇게 펜을 들어 그분의 이야기를 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서정은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가 2008년에 총회의 요청에 의해 파송한 총회 1호 순회선교사이시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에 순회선교사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분이 없었다고 한다. 그것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선

비전트리 고등부

부모는 멀리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주님의 교회 고등부는 사랑과 열정이 넘치시는 김주형 전도사님, 신실함과 온유의 대명사 감낙교부장님, 그리고 온화한 미소로 알뜰 살뜰 살뜰을 꾸려가시는 윤명희 권사님, 마당밭을 과시하며 온갖 곤은일을 마다 하지 않는 최현배 총무님, 그리고 역대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교사들로 날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가끔 2부예배를 마치신 교인분들께서 시끌벅적한 고등부 예배가 궁금하셔서 기웃거리시며 도대체 고등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더불어 한 시간 정해진 시간에 마치는 대예배와 달리 고등부 예배는 최소 두 시간이상

교사는 선교사의 멘토가 되어서 선교사들의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에 선교사님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분이 아니면 사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서정은 선교사님은 선교학 교수로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서의 현장경험 뿐만 아니라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받는 분이기때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다고 들었다.

선교사의 사역은 영적인 최전선에서 감당해야 할 사역이기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험과 어려움으로 인해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많으며 이것은 가정과 사역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고 한다. 서정은 선교사님은 선교 현지를 방문하여 이러한 어려움들을 상담하고 새로운 선교의 활력을 불어넣는 영적 멘토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다.

사실 나도 60이 넘는 나이이지만 이러한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70이 넘는 노구를 이끌고 참 노년의 삶을 보람되게 산다고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사색에서 시차에 적응하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예전같이 빨리 회복되어지지 않아서 힘에 부친다는 애기와 지난 날미 선교지 탐방 때는 무리한 일정에 현지에서 잠시 정신을 잃기까지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는 이분의 사역이 자신의 생명을 내 놓고 하는 사명감에서 나온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숙연함을 느끼기 까지 하였다.

나도 이제 인생의 황혼의 때를 보내면서 뭔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제 홈리스 서정은 선교사님의 삶은 이러한 나에게 귀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선교사님의 사역위에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린다. (조원호 장로)

수를 두려워 하지 않고 오히려 실수를 공연의 한 요소로 승화시킵니다. 오심줄에 접어들 고등부 심년차 중견 교사지만 아이들의 문화예배를 볼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기쁨으로 가슴이 터질듯한 감격을 맞습니다.

요즘 광고중에 이런 카피를 기억하실겁니다. 부모는 멀리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 꿀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고등부 예배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적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학업으로 억눌린 영혼의 날개를 활짝 펴는 시간입니다. 이 영적에너지의 충전시간이 길어지는것을 기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문화예배도 함께 참석하여 온몸으로 찬송하는 아이들의 이쁜 모습, 눈물을 떨구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의 신실한 모습 사소한 일에도 친구들을 격려하는 대견한 모습 무엇보다 기쁨으로 빛나는 아이들의 환한 얼굴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활이며 자녀들은 화살 그리고 활을 당기시는 분은 하나님어심을 믿습니다. 저희 고등부는 자녀들이 더 높게 더 멀리 날아가도록 부모님과 힘을 보태 힘껏 휘어지겠습니다. (고등부 일학년 육반 담임교사 엄인호)

말씀서예반 탁본실습

매주 지하 소식당에서 조용히 서예에 정진하던 주님의 교회 서예반이 마지막 종강을 기념해 탁본행사를 가졌다. 6월 마지막주 2부예배가 끝나고 여주군 산북면에 위치한 서희장군 묘비로 향했다. 그동안 서예 법첩(法帖)과 매주 선생님이 써주신 체본(體本)을 가지고 연습을 해왔는데 오랜만에 현장에 가기로 해 다들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장마가 시작되어 하루종일 비가 온다는 예보 때문에 가야할지 망설였지만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출발하기로 하였다. 마음까지 풍요로워지는 시골풍경을 한 폭의 그림살아 감상에 젖어 달리던 우리는 어느새 양평을 지나 천서리에 도착, 천서리의 명물 막국수를 먹고 참외밭에 들러 후식으로 참외를 시작하기도 했다. 원두막 주변 산에도 화썬 언갠개 나즈막이 걸쳐 주위의 아름다움을 더해 주었다.

우리가 서희장군 묘비에 도착했을 즈음에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서희장군 묘비는 서희장군 아버지인 서필의 비와 나란히 함께 서 있었다. 준비해간 스프레이로 비석에 물을 뿌린 후 화선지를 덮고 물기를 꼭 짰 물수건으로 꼭꼭



눌러주어 음각 형태의 글씨가 선명히 드러나도록 경계면을 확실하게 하였다. 광목천을 입힌 질판지우개에 먹물을 묻혀 먹물이 내부에 고루 퍼지게 광광 두드린 후 화선지에 도장을 찍듯 살살 눌러주었다. 선생님의 설명이 끝나자 한 사람씩 돌아가며 실습을 하고 사진도 찍었다. 자기가 직접 뜬 탁본을 들고 다들 흐뭇해 하였다. 법첩에 잘못 인쇄되는 과정이 왜 생겼는지 우리는 실습을 통해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책

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고, 체본을 할 때 번지는 효과 때문에 글씨는 더 가늘어 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행사를 모두 마친 후 풀을 뜯어 비석을 꼼꼼히 문지르고 물을 묻힌 수건으로 비석을 깨끗이 닦아내니 탁본의 흔적이 모두 사라졌다. 이전보다 비석이 더 깨끗해짐을 확인한 후 묘비와 조금 떨어진 서희장군 묘로 향했다. 특히하게도 위쪽을 서희장군 부부묘, 아래쪽을 부모님 묘로 쓰고 있었다. 묘지 앞을 길고 넓게 만들어 주변의 전나무 숲과 잘 어우러진 것이 웅장한 가운데서 느낄 수 있었다. 잠시 후 선생님의 풍수지리에 관한 여러 이야기로 명당자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키는 도중에 오키도 따먹고 재미있는 추억도 많이 남기고 돌아왔다. 적당한 날씨로 우리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소 섭외와 편의를 제공해 주신 이우봉 집사님, 운전으로 묘비 청소로 수고해주신 집사님들, 그동안 우리에게 항상 유머와 해박한 지식으로 서예시간을 재미있게 이끌어주신 정도일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유경 집사)